

제 4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논문을 모집합니다.

■취지 및 주제

제 4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2020 년 1 월 8 일~12 일,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 필리핀대학 로스바노스 캠퍼스)

「'동아시아'의 탄생—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19 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각 나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 않아,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이 글로벌화의 움직임을 북태평양까지 가지고 오자, 한 · 중 · 일은 정치 · 경제 · 통신,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상상력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내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서양이 상업에 대한 강한 관심과 새로운 교통 · 통신 · 군사기술을 지니고 이 지역에 다시 나타났을 때, 조선 · 중국 · 일본은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리고 이 인식은 전통적인 지(知)의 체계와 어떻게 뒤얽혔던 것일까.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양학(洋學)이 학교 교육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된 한편, 천황을 질서의 핵심에 두고, 가족 내에서는 유교적인 남성우위관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에 대한 반발과 동경심의 구성형태는 나라별로 달랐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서양의 진출은 각국의 자기 방위를 재촉하였고, 결과적으로 각국을 “국민국가” 로 변화시켰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국경을 명확화하고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서양이 도입한 해운망은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유인해내기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대량의 노동자가 동남아시아와 미대륙으로 향했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민자가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이민자는 적었으나, 외국 유학생이나 정치적 망명자가 출현하여, 이윽고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경을 넘는 이민 · 유학 · 망명의 교착은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를 국제관계와 국내질서의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고, 20 세기의 대변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며, 3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국의 사정을 비교하고 토론할 것이며, 이를 통해 19 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대전환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3 개 국어의 SGRA 레포트로 발행하고, SGRA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응모자에 요청하는 바

상기한 테마로 발표 · 토론을 하고 싶은 분은, 약 2,000 자 분량의 발표 요지문을 보내주십시오. 응모 가운데에서 국경을 넘는 대화에 어울리는 원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논문 집필시에는 외국의 유사분야 연구자, 혹은 자국의 다른 분야 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유사한 문제의식이 이웃나라에도 존재하며, 따라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동시에 국가 사이의 같고 다르거나 해석의 차이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참가자 사이에서 지(知)를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장래 지적협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발표 언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하나

■모집 내용

●원탁회의 3 개의 세션(각 국의 연구주제는 ①서양 인식 ②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③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할 것)에서 발표할 논문, 각 언어 한 편 × 3 세션=9 편 중 약 절반. 원고는 다른 두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며, 발표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2020 년 1 월 9 일 (목) , 알라방시에 있는 호텔)

※등록비, 숙박비(1 인 1 실), 여비를 아즈미재단이 부담합니다.

●분과회 3 세션(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각 3 편 씩, 총 9 편까지.(2020 년 1 월 11 일 (토) , 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 캠퍼스)

※등록비, 숙박비(2 인실 이상), 여비(상한액 있음)를 아즈미재단이 부담합니다.

■투고 방법

다음의 정보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름(한자, 히라가나/한글, 알파벳) · 소속 · 연락처(이메일)

2000 자 정도의 발표요지

600 자 정도의 약력 · 주요논문 리스트

추천자 이름 · 소속 · 연락처(이메일)

송부 및 문의처 : kokushi@aisf.or.jp

마감 : 2019 년 1 월 20 일 (※변경)

■심사 결과

학술위원회에 의한 심사 결과는 2019 년 3 월 31 일 이 지나기 전까지 발표하겠습니다.

합격자는 아시아미래회의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논문 투고 및 참가 등록 스케줄

10 월부터	발표자 미니 공모
1 월 20 말까지	모집기한 (발표요지 투고)
3 월 말까지	발표자 결정, 분과회 세션 발표자 선정 공고도 겸함
4 월 말까지	제목, 발표요지, 약력 제출
6 월 1 일~7 월 31 일	아시아미래회의 온라인시스템 등록 및 투고
7 월 말까지	【원탁회의】 발표 원고 (완성 원고, 5~10 페이지 정도) 제출
10 월 말까지	【원탁회의】 한중일 3 개 국어로 원고 번역 【분과회】 발표 원고 (완성 원고, 5~10 페이지 정도) 제출
12 월 상순	【원탁회의】 회의자료 송부 및 자료집 작성
1 월 9 일~10 일	제 4 회 「국사들의 대화」 원탁회의(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에서 개최)
1 월 11 일	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에서 분과회 세션